

다연산업

일본 국제농업기계전시회 출품업체

다연산업(주)(대표이사 금재호)이 생산 공급하고 있는 강화유리섬유인 FRP소재 축산기자재가 최근 일본 국제농업기계전시회에 출품돼 큰 인기를 끌었다.

다연산업 제품을 수입 공급하고 있는 (유)석촌철공(石村鐵工)에 따르면 최근 일본 북해도 오비히로에서 개최된 국제농업기계전시회에 쉐 3종, 젓소용 자동물통 3종, 한우용 자동물통 3종, 이온온풍기, 자동목걸이를 전시해 일본 축산인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참관한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축산인들은 물론 동남아 축산인들의 국내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는데, 특히 한국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처럼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 관심을 끄는데는 최근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다연산업 제품들은 현재 일본에서 공급 중인 제품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 앞서거나 비슷하며, 가격대는 일본 제품의

70~80%선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연산업 제품을 전시한 (유)석촌철공은 1956년에 창업해 축력용 일반농기구와 기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초창기에는 일반 농기계인 쟁기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농업의 새바람이 불어오면서 고능률 저비용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만이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는 창업자인 안도상의 제안에 따라 경쟁력 있는 제품을 구상하던 중 한국 제품을 취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 원예용 비닐과 하우스용 원치, 자재를 수입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도 축산경쟁력이 강화되면서 국내 축산기자재에 눈을 돌려 다연산업 제품을 수입공급하고 있다. 특히 2년 전부터 국내 축산 기자재를 수입 공급하고 있는 (유)석촌철공은 한국산이 일본 제품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판단, 이번 전시회에 10부스를 신청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결과 대성공을 거뒀다며 수입 물량을 늘리는 등 품목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다연산업 금재호 사장은 “FRP소재의 제품은 현재 일본에서 생산이 중단되거나 생산량이 적어 일본 축산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제품을 생산하면서 최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결점을 보완한 것이 일본 축산농가의 구미에 맞아 떨어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향후 수출용은 새로운 형태의 포장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국내 축산기계의 해외 진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번 일본 전시회는 참관 인원 면에서 국내에서 개최된 대전 축산박람회보다 많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시에 야외전시 위주로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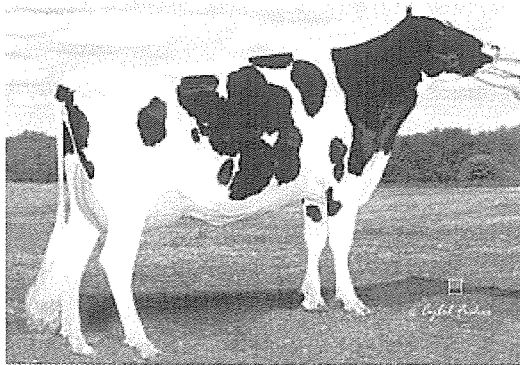
위에 대한 어려움이 컸으나 부스비용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저렴해 업체의 부담이 없고 다양한 업체가 참가해 작업기의 시운전이 가능하는 등 앞으로 국내 전시 관계자들이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내업체들도 해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교환과 공동 전시로 해외 바이어를 유치 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직생산 업체들로 구성된 수출협회가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연산업은 이번 일본 전시회를 계기로 가일층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국내 축산농가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일본 시장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양진테크

ABS SIRE SUMMARY TPI 성적, 또 불턴(29HO11111)이 1등을 차지

미국 최대정액 제조 공급회사인 ABS사의 국내 공급사인 중양진테크는(대표 배규익) 8월에 발표한 ABS SIRE SUMMARY TPI 성적에서도 5월에 이어 불턴(29HO11111)이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체형과 생산형질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불턴은 외모 +2.29, 유방 +2.78, 지제 +2.15의 체



형 3개 형질과, 생산형질에서 모두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주위의 감탄이 자자하다고 밝혔다. 또한 젯스트림(29HO10792)는 외모 +1.72, 유방 +2.25, 지제 +1.35의 체형 점수로 미국내 TPI 성적에서 5위를 차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에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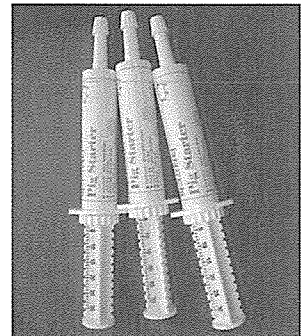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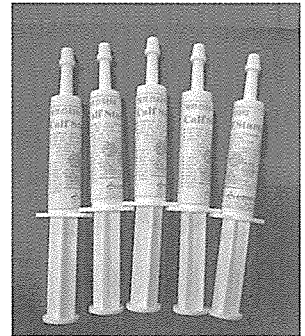
(주)신한바이오켄

면역항체제품 출시준비

신한바이오켄은 미국의 ABT연구소와 제휴하여 생명공학기법으로 개발된 신생 송아지와 신생 자돈용 항체제품인 “카프스타터(Calf Starter)”와 “피그스타터(Pig Starter)”를 출시한다.

송아지와 자돈에 설사를 유발하는 병원균을 검색-분리-배양 후 배양된 병원균으로 제조된 항원을 산란계에 접종하면 난황에 항체가 축적된다.

금번 출시되는 신제품은 이 난황항체(IgY)와 염선된 장내 유익균을 함유한 치약 형태의 반고형 제품으로 최근 2개월간 국내 여러 농장에서 실시된 현장검증 실험에서 분만 직후 신생가축에 급여 시 설사발생 억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신제품 '퓨리나 헬씨카우' '육성우 티엠알' 출시
 (주)에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대표 정학상)는 최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2007 퓨리나 낙농 캠페인' 회의를 열고 착유우용 사료 신제품 소개와 함께 전사적인 판매활동 강화를 다짐했다.

이날 소개된 '퓨리나 헬씨카우'는 '퓨리나 해피카우'에 이은 새로운 착유사료로 착유우의 건강증진을 통해 목장의 안정된 수익을 위해 개발됐다. 이 제품은 첨단 영양이론에 의한 균형된 영양공급으로 높은 산유량과 안정된 번식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가소화 섬유소를 강화해 반추위 건강유지 및 안정된 섭취량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퓨리나 헬씨카우'는 안정된 유량을 추구하면서 번식문제, 유질개선이 필요한 목장에 적용하면 좋다. 특히 착유사료 사용량이 많은 목장이나 정밀 사양을 적용하는 목장에 사용하면 보다 탁월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신제품인 '퓨리나 육성우 티엠알'은 지난해 소개된 착유우용 '퓨리나 목장맞춤티엠알'과 올 상반기 출시된 '퓨리나 건유·후래쉬 티엠알'에 이은 티엠알 제품으로 생후 7개월령부터 초산분만 한달전까지 급여할 수 있다. 이로써 육성우, 건유우, 착유우에 이르기까지 목장에서 퓨리나의 완전한 티엠알 프로그램을 구비해 보다 쉽게 티엠알 사양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퓨리나 관계자는 "퓨리나 육성우 티엠알'을 적용하면 13개월령에 체중 350kg으로 성장해 초종부가 가능하다"며 "또한 23개월령에 체중 612kg으로 초산분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국내 검정농가 평균 초산월령 27개월과 비교해 4개월을 단축하는 것"이라며 "건유 섭취량 증가와 체중증가를 통해 분만후 공태일수도 한

달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성일기전

오토헨으로 세계시장 일군다

축산 기자재 산업도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자재 산업의 수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성일기전(대표 이영운)이 소형헨에 이어 대형헨으로 헨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시장을 일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성일기전이 수출에 눈을 돌린 것은 2002년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 중국, 대만,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등 아시아 8개국과 스페인, 헝가리, 포르투갈, 폴란드 등 유럽 4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남미와 미국, 캐나다, 중동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보하면서 축산 선진국인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성일기전의 남정식 실장은 "최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고 설명하고 그간 유럽의 주요시장을 피해 주변국에 공급했으나 품질과 가격에서 자신감이 있어 마케팅 강화로 경쟁할 계획을 펴려고 있다. 2002년 일본 수출시 1년 매출량이 20만달러에 그쳤으나 올해에 1백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 오토헨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배운 노하우를 해외시장에도 접목해 한걸음씩 공격적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조사결과 가격과 품질에서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 이제는 해외 축산농가의 농장에 'MADE IN KOREA SUNG-IL AUTO FAN'의 자막이 걸려있기를 기대하고 있다.☺